더 밝은 미래를 함께 여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결혼! 솔직히, 집안도 봐야 하는 거 아니예요?
광주지사 228-3222 DAKS club 닥스클럽(주)

제1774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5월 1일 (음력 3월 15일) 화요일

무너진 기초 질서

❷넘치는 불법 광고물

주말인 지난달 28일 밤 10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C호텔 앞 인도에 인근 유흥주점과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에어라이트가 길게 늘어서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뿌리고… 붙이고… 거대 쓰레기장

전단·플래카드·에어라이트 '우후죽순'
낮 뜨거운 음란 광고물 주택가까지 침투

광주시내가 불법·음란 광고물로 넘쳐나고 있다.

불법·음란 광고물은 상무·용봉지구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충장로 등 도심 지역은 물론,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명함 크기의 소형 전단에서 플래카드, 에어라이트(고무풍선형 입간판) 등 형태도 다양하다. 전국체전을 앞둔 '문화수도 광주'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주말인 지난달 28일 밤 9시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2가.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리 곳곳의 바닥에 최근 문을 연 B나이트클럽에서 붙인 가로 50㎝·세로 80㎝ 크기의 광고전단지 수십장이 도배돼 있었다.

일부 광고전단지는 행인들의 발에 밟히고 찢기면서 쓰레기로 변해 금세 거리를 더럽혔다. 흡사 거대한 쓰레기장과 같았다.

밤 10시께 서구 상무지구 C호텔 주변. 인근 가로수와 가로등, 교통표지판에 L대리운전과 A노래방을 소개하는 가로 50㎝·세로 50㎝ 크기의 코팅된 전단지가 주렁주렁 매달려있었다.

성인 눈 높이에 걸려있는 전단지부터 단속반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3m 이상 높이까지 5~6개의 전단지가 걸려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인도에는 술집과 노래방을 홍보하는 에어라이트가 20~30m 간격으로 늘어서 행인들의 발길을 가로막았다. 근처 도로에 불법주차된 10여대의 트럭에는 '최상의 서비스'를 알리는 마사지 업소 전광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북구 용봉지구 모텔 밀집촌에는 다방이나 안마시술소 등을 선전하는 음란성 전단지가 대량 살포돼 있었다. 20대 여성의 반나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형 전단지가 주차된 승용차 창틀에 5~6장씩 끼워져 있었다.

아파트와 주택가도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

남구 D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이모(여·52)씨는 "매일 아침 불법 투기된 전단지를 줍느라 녹초가 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30세대가 있는 한 라인에서 수거한 불법 광고물이 매일 10ℓ 쓰레기 봉투를 가득 채울 정도라고 전했다.

주민 박모(여·32)씨는 "업체에 직접 전화해 따지기도 했고 구청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외출하고 돌아오면 아파트 문이 온통 전단지로 도배돼 있어 처치 곤란"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광주시나 각 구청의 단속은 겉돌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 3천645건, 유동광고물 87만1천659건에 이르지만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시내 구청의 경우 단속 공무원은 2~3명 정도에 불과해 쏟아지는 광고물을 단속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불법 광고물에 따른 과태료도 최고 300만원에 불과해 '단속과 불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김회장이 쇠파이프로 폭행"

경찰, 중간수사 발표…피해자 진술 확보

둘째아들 오늘 소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피해자들은 진술을 통해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현장에서 '아들을 내가 때렸다'고 말한 조 모씨의 등을 쇠파이프로 가격하고, 발로 얼굴 등 전신을 수십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경찰은 "김 회장은 '내 아들이 맞는데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나머지 북창동 S클럽 종업원 3명도 손과 발로 얼굴과 등 부위를 10여차례 이상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또 "김 회장 일행은 아들이 '조씨는 나를 때린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북창동 S클럽으로 이동해 윤 모씨를 불러 아들 김모씨에게 직접 폭행토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조사한 피해자 6명 중 5명은 회장에게, 1명은 아들에게 직접 맞았다고 주장했다.

공사장에 끌려갔던 또 다른 조모씨와 김모씨, 정모씨는 꿇어 앉은 채 김 회장에게 10~20여차례씩 손과 발로 맞았고, 북창동 S클럽 사장 조모씨는 뺨과 목을 세 차례 얻어 맞았다.

그러나 김 회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11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북창동 S클럽에 가서 아들 일행과 시비가 붙었던 술집 종업원들을 화해시키려고 술을 함께 마셨을 뿐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며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청은 김 회장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등 수사 기록을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보복폭행 사건을 직접 주도했다고 결론짓고 객관적인 증거를 보강해 1일 중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회장의 차남(22)이 이날 귀국하는대로 최단시간 안에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도록 한 뒤 보강조사 후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운찬, 대권 포기

어제 전격 불출마 선언

범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돼 온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지난달 30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7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정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그의 정치 참여를 통해 지지부진한 상황을 돌파하고 새판 짜기를 시도하려 했던 범여권의 정계 개편 작업은 물론, 향후 전체 대권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지난 몇달간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했지만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이번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제게 그럴만한 자격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2013 동아시아대회' 철회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2013 하계 U대회 도전

광주시가 지난 10개월 동안 추진해 왔던 2013년 동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철회하고,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작년 7월 동아시아대회 유치위원회를 결성해 유치 활동을 벌여왔으나 국익을 고려해 동아시아대회 유치를 포기하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 같은 입장은 오는 6월로 예정된 개최지 결정에서 광주가 2013년 동아시아대회를 유치할 경우, 7월 예정인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결정시 경쟁 국가들의 견제가 심해져 평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 결정은 오는 2008년 말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동아시아대회에 비해 선수 규모가 3배나 더 많은 1만1천명이며, 생산유발효과도 5천911억원에 달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상담홍보실 (062)970-0114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상담홍보실 1588-5051 ▶T.(061) 360-5000

제52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논술[예선]
5월1일 ~ 5월19일 접수
▶현장예선실기대회
5월9일까지 접수
[5월11일, 금호패밀리랜드]
▶미술·작문부문 입선제도입
www.kwangju.co.kr (한글)광주일보
(062)222-0541·222-8111

5월 3일 마침내 山을 품은 한국아델리움이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광주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국아델리움의 The Mountain Project가 2007년 5월 3일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드높은 삶의 자리 풍암(2차), 문흥(오치), 운림(소태)에서 귀하만을 위한 더 푸르고 더 큰 풍경과 만나보십시오.
광주 최초 원금보장제 실시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5%
한국아델리움 전속모델 김승우
산을 소유한 광주의 주거명작
Adelium
한국아델리움
푸른산을 품은 3곳의 아델리움 - 풍암(2차) · 문흥(오치) · 운림(소태)
한국아델리움이 들어서는 그 곳, 2007년 광주의 중심이 됩니다
• 삼각산의 푸른 기슭 문흥(오치) 아델리움 - 43 · 48평형
• 금당산을 품에 안은 풍암(2차) 아델리움 - 43 · 49평형
• 무등산의 맑은 공기 운림(소태) 아델리움 - 51평형
모델하우스 OPEN EVENT!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이 와르르~!
일렉트릭 현악 4중주 협연과 함께 오픈 기념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재미있는 석고마임도 보고~ 맛있는 빵과 쿠키도 먹고~
경품행사 _ PDP 벽걸이형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스팀청소기 평면 29인치 TV, 압력밥솥, 가습기, 스팀다리미
시행 한국건설(주) H·K레져(주)
시공 한국건설(주)
5월 3일 모델하우스 오픈
모델하우스 -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분양문의 1577-8733